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의미와 과제 *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목차

1. 문제제기
2.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성격
3.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의 의미와 필요성
4.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과제

1. 문제 제기

지난 4차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을 때, 우리와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문이 열렸다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북한과 미국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우울한 내용이었다. 미국은 북한을 ‘범죄국가’로 규정하는 등 강경입장을 재확인하고 있고, 북한은 미국의 금융제재와 인권문제 제기를 정권말살 의도로 인식하고 핵카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북핵문제의 타결과정이 이행될 것을 전제로 대대적인 대북한 경제협력계획을 준비하고 있던 우리로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은 우리에게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과 대북경제협력의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에, 북한은 북핵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미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족공조’의 강화를 역설하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경제공동체를 건설하는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다소 생뚱맞을 수 있다. 그러나 남북간의 경제협력이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북한지도부의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와 체제 유지에 대한 확신이 태도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핵문제 타결 이후 남북이 더불어 번영하는 경제공동체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한반도에서 경제공동체 형성의 의미와 이를 위한 과제를 조망해보고자 한다.

2.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성격

공동체란 라틴어 ‘Communitas,’ ‘Communis’에 어원을 두고 있는 용어로 사전적(辭典的)으로 “공통의 생활을 영위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공동체는 “경제생활에서 같은 목적과 의식을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무리나 모임”을 지칭한다. 여기에서 ‘공동체’가 갖는 의미의 핵심은 자발적으로 공동의 의식과 목

* 이 글은 「민족화해」 2006 01/02(제18호) pp.16-19에 실린 글입니다.

표를 공유하고 공통의 공간에서 생활을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에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공동체에 참여할 남북한의 구성원들 사이에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적, 목표, 의식에 대한 공유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 경제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남북한 경제를 통합하여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문제는 주로 정부의 대북정책 차원에서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통일과정의 중간단계로 인식되어온 측면이 많다. 근래에 남북관계가 발전하면서 한반도에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커가고는 있지만 경제공동체의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시작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경제공동체는 그동안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가 되어야 한다. 지난 시기의 대립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달라진 文化와 意識을 서로 포용하며, 물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서로 나누는 노력이 매우 중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쪽의 제도와 시스템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서로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공동체를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마도 자본주의체계에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강화한 ‘복지자본주의’와 사회주의적 계획과 자유경쟁제도를 절충한 ‘시장사회주의’의 중간적인 형태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자본주의체계에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도입할 경우 시장경제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公共부문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공공성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공공성의 범주는 공동체 형성 초기단계에는 토지공개념의 도입을 포함하여 다소 광범위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점차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지향할 경제공동체의 성격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3.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의 의미와 필요성

남북통일 이전의 단계에서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고,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경제공동체를 형성할 필요가 있을까?

경제공동체 형성을 당면 목표로 추구하는 것은 통일 실현의 현실적 어려움과 급격한 통일의 부작용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다. 당면한 북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주변국들의 입장이 다르다는 사실이 통일 실현의 어려움을 반증한다. 통일이 급격하게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게 될 문제점은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 추정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는 독일에 비해 경제력의 차이도 크고, 우리의 경제력도 작으며, 정서적인 갈등의 여지도 훨씬 크다. 따라서 경제공동체 형성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가장 현실적인 정책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에 경제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은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빠르게 성장하면서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성장잠재력을 우리가 적극

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안보적 불안정성이 해소되고, 지리적 상호접근에 있어서 장애가 제거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공동체의 형성은 한반도가 대륙경제권과 해양경제권을 연결함으로써 가교국가로서 이점을 극대화 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정착과 공동 번영에도 기여할 수 있다.

경제공동체의 형성은 남북경제 모두에게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한다. 남북경제의 장점들을 결합한 새로운 비교우위의 창출, 지리적 단절을 해소함에 따른 협력사업 영역의 확장,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재원 확보의 용이함 등을 통해서 경제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반도에서 경제공동체가 형성된다는 것은 동북아시아에서 경제협력 가능성을 증대시킴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 경제공동체 건설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형성을 통해서 주변국 가들에게 경제협력 기회의 확대라는, 블루오션(Blue Ocean)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4.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과제

한반도에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과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일차적으로는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대내외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북한과 구체적인 실현 방법을 조율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첫째, 대북정책을 포함해서 다양한 부문의 갈등을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합의구조가 필요하다. 남북간에 경제공동체 형성 작업이 추진될 경우 우리 사회 내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될 것이고, 자칫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화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양극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경제공동체 형성과정에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 미리 그에 대한 치유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한반도에 경제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역사적인 과업을, 우리 사회에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적 통합을 이루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경제공동체의 성격과 실현 방식에 대한 북측의 동의를 확보 작업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으로서는 경제적으로 우리와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경제공동체 형성 문제를 논의하지는 우리의 제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들어 북한당국이 경제 회복을 위해서 남측과의 경제협력사업을 확대하는데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공동체는 북한사회 내부로부터의 변화 요구가 증대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바,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산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전략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북한 내부의 인적역량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내부의 적응작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의 변화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작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환경의 성격과 그 것의 변화 흐름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로서는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고 동북아 지역의 역동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을 주도해 나가고, 이를 한반도 경제통합의 추동력으로 활용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북한지역개발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체계를 구성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북한지역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을 지원하는 정부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간부문의 국제자금 투자를 위한 다국적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작업의 추진이 요청된다. 이를 위한 민간협력체계의 구축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